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늘어나는데... 노동인권 교육은 '전무'

### 학교 밖 청소년 30% 아르바이트 경험 아간·휴일 근로에도 임금 못 받아 노동인권 교육, 학교 중심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맞춤 교육 지원 필요

서울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노동 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미의 청소년도 노동 인권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6418명이었던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2021년 9165명, 2022년 1만1902명으로 3년 새 약 85.5% 급증했다.

“2021년 서울 학생 노동 인권 실태 조



한 장으로 보는 청소년 노동 인권(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실) 리플렛 표지./서울시교육청

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7.7%)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아간·휴일 근로를 했는데 가산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 순으로 자주 발생했으며,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51.4%에 달했다.

현재 노동 인권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 중 70.9%는 효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긍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75.8%로 가장 높았다. 직업계고(73.0%), 일반계고(65.8%)가 그다음이었다.

원동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노동인권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었던바,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노동 인권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했더니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참고 계속 일했다'(33.7%)가 뒤를 이었다.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노동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12.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0.9%), '개인적으로

항의했다'(8.7%) 등 어떤 식으로든 노동인권 침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원동아 예산분석관은 "노동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스스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중 어떤 게 부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사업을 마련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시민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 폐지”

###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등 추진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을 발굴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그간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며

서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해당 규제를 없애는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직접시공 20%시 만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또 시는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 보험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공유 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계약 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후 예산제 운영 개선 ▲서울형 키즈 카페 이용 대상 확대 ▲창업 지원 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지식에 405개 강좌 신규 개설

### 생성형 AI, 금융·재테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금융·재테크, 마음 건강, 은퇴 설계,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405개가 오는 12일까지 차례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개설된다. 신규 강좌를 포함한 전체 강좌 수는 13개 분야 총 1800여 개다.

도는 도민의 학습 수요와 최신 트렌드, 이슈를 반영해 신규 강좌를 구성했다. 온라인 강사진은 김미경 강사, 김경일 심리학자, 김삼욱 물리학자, 홍춘욱 경제전문가, 정재승 물리학자, 윤대현 정신건강의, 김현 인문학자 등 분야별 명사로 꾸렸다.

주요 강의로는 ▲디지털 역량강화(챗 GPT 혁명,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질문력) ▲생활 취미(시니어 근력운동, 웹소설 쓰기) ▲인문·교양(머니 트레이닝, 번아웃 벗어나기, 현대 건축 여행) ▲직무 역량 개발(대화의 기술, 퇴사 준비는 40대부터) 등이 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2025년 정규강좌 /경기도

이 밖에도 '가까운 사람의 우울증 어떻게 대해야 할까?',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돌봄교육',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교육' 등 돌봄환경 관련 강좌가 새롭게 개설됐다. 자격증 취득, 외국어, IT 등 200여 개 강좌는 최신 정보로 내용을 교체하거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확대·재구성됐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도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강좌를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평생학습 강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서울시, 올해 경력단절 여성 2620명 지원

###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서울시는 경력 단절 여성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돕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620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11~28일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구직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 거주 만 30~49세 미·취창업 여성 중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

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1800명에게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3개월 동안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연계를 돕는 '우먼업 인턴십'도 진행한다. 시는 내달 인턴십 참여자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779원, 월 246만원)을 받으며 일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시는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들과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기업 50곳에 '우먼업 고용 장려금'(30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단절된 3040 여성 누구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리고 취·창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7 | 해질 / 18:06

2월 10일 (월)  
음력 : 1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2℃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14/2, 동두천 -12/2, 가평 -14/2, 파주 -14/1, 서울 -8/2, 양평 -14/2, 인천 -7/1, 수원 -7/2, 용인 -7/2, 평택 -14/2,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시는 2025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학

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하면 지난해 7~12월 발생한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올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 신용 유의 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佛 사르코지, 대통령 최초 '전자발찌 착용' 굴욕...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국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단호히 거부 /사진 뉴시스

▲“하필 거기로 넘어져서”... 관람객 실수로 르네상스 거장 작품 찢어져  
▲추락한 알래스카 항공기 탑승자 10명 유해 모두 수습 완료

▲1월 중국 소비자물가 0.5% ↑... “춘절 수요 영향”  
▲북한, 러시아와 드론 공동 개발... 올해부터 양산 전망